

<성매매의 진화심리학>

요약의 8요소와 요약문 / 논평문

이름 - 나서현

학번 - 202411040

2024년 4월 10일

현안문제	현재 성매매에 관한 윤리와 법률은 올바른가?
주장	성매매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률적 접근이 재고되어야 한다.
핵심어와 그 의미	1) 성매매 : 성적 충동과 양육의 부담감. 이 두가지의 상충되는 본능을 적절히 해결하는 형태. 2) 진화심리학 : 성과 관련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
근거	1. 생식이라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1) 양적 차이 - 남자는 한 번 사정할 때 수억 마리의 정자를 배출하지만, 여자는 4주에 하나의 난자만 만들어 낸다. 2) 질적 차이 - 새로운 생명을 만들기 위해 남자는 정자를 배출하기만 하면 되지만, 여자는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음. 3) 남자는 정자를 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도록 진화해 왔으며, 여자는 소중한 난자를 위해 소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도록 진화해 옴. 2. 남자는 성충동 본능과 성을 억누르는 본능을 가지고 진화해 왔다. 1) 남자는 함부로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불확실한 양육의 책임감을 떠안게 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진화해 옴. 2) 남자의 강한 성적 충동과 자신의 자손이 확실한 경우에만 양육하고자 하는 본능은 상충함. ① 성적 충동은 성행위를 유도하지만 양육의 부담감은 성행위를 억제함. ②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본능을 해결하는 형태가 성매매임. 3. 진화심리학은 성과 관련한 윤리와 사회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진화에서 비롯된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1)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동등해야 한다거나 모든 성 윤리는 오로지 사회문제일 뿐 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무시하는 비과학적 태도임. 2) 진화심리학에 의하면 투쟁 본능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월등히 강하도록 진화해 옴. 4. 성매매에 관한 윤리와 법률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1) 성매매 문제를 다룰 때에는 성별에 따른 생리학적 차이와 진화심리학적 관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윤리적 지침과 법률적 접근을 모색해야 함.
숨은가정	성매매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양육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이다.
관점	생리학적 차이와 진화심리학적 관점.
배경 (목적)	성적 욕구와 행동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 함.
합축 (숨은결론)	성매매에 관한 윤리와 법률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요약문>

생식이라는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는 성충동 본능과 성을 억누르는 본능을 가지고 진화해왔다. 남자의 강한 성적 충동과 자신의 자손이 확실한 경우에만 양육하고자 하는 본능은 상충한다. 이 두가지 상충되는 본능을 적절히 해결하는 형태가 바로 성매매이다. 진화 심리학이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진화심리학은 성과 관련한 윤리와 사회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진화에서 비롯된 인간의 생리적 현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매매에 관한 윤리와 법률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동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